

2007. 11. 16 (金)

第165回 束草市議會(臨時會)

# 市政質問書

1.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김강수 의원)
2.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김강수 의원)

束草市議會

| 시 정 질 문 서                                                                                                                                                                                                                                                                                                                                                                                                                                                                                                                                                                                                                                                                                                                                                  |                                    |      |              |
|------------------------------------------------------------------------------------------------------------------------------------------------------------------------------------------------------------------------------------------------------------------------------------------------------------------------------------------------------------------------------------------------------------------------------------------------------------------------------------------------------------------------------------------------------------------------------------------------------------------------------------------------------------------------------------------------------------------------------------------------------------|------------------------------------|------|--------------|
| 질문의원                                                                                                                                                                                                                                                                                                                                                                                                                                                                                                                                                                                                                                                                                                                                                       | 김 강 수                              | 서 명  |              |
| 제 목                                                                                                                                                                                                                                                                                                                                                                                                                                                                                                                                                                                                                                                                                                                                                        |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br>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 담당실과 | 자치행정과<br>보건소 |
| <p>평소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제시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p> <p>아울러, 우수 공직자 양성을 통하여 전국 제일 인적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하여 맡은바 책무완수에 365일 연중 노고가 많으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p> <p>작금 현대 공무원 사회는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중앙의 권한과 업무가 지방으로 재조정 이양되면서 지방정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전문화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그들의 능력을 소신껏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평가에 의한 승진 기회부여·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p> <p>공무원의 승진기회가 각 자치단체의 조직과 규모 등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 하다 할지라도 장기간 인사의 적체가 지속된다면 이는 곧 공무원들의 사기와 행정업무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른 행정의 질도 서비스도 하락</p> |                                    |      |              |

하게 되어 이는 곧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으로 연결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진과 인사는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경우 인근 자치단체 보다 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원도로부터 공무원 전입 등 인사교류와 속초시의 인사행정시스템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속초시가 민선출범 이후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관행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해 본다면, 지난 1995년 7월 민선 출범이후 도내 18시·군 중 부단체장을 단 한번도 자체승진 시키지 못한 자치단체는 유일하게 속초시 뿐이며, 금번 장기간 공석 중이던 보건소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정년을 15년 정도 남은 젊은 의무사무관을 전입 받았다는 사실은 시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도 있었으리라 생각은 되나 타 분야와는 달리 보건행정의 정체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직에 대한 승진 적체현상을 가중시켰음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만을 야기 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강원도로부터의 시설사무관 전입 문제입니다. 속초시 시설사무관 한자리는 1999년에 전 속초시 모과장이 정년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강원도로 전출됨에 따라 그 때부터 강원도는 시설사무관 자리 하나를 마치 자신들의 보직 인양 계속하여 속초시로 보내고 있어 이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정부의 소규모 동(洞) 통·폐합 지침에 의해 속초시에서도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km<sup>2</sup> 미만의 일부 동(洞) 주민센터에 대한 통·폐합 안을 마련하고자 주민여론 수렴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오는 12월 대통령선거후 새 행정부가 탄생되면 최소 몇 개 동의 주민센터는 축소가 불가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구 조직이 축소되어 이 문제 또한 공무원 승진과 인사적체의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바,

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앞으로 시차원의 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민선 출범이후 도내 18개 시·군 중 부단체장을 자체승진시킨 자치단체를 파악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속초시의 경우 향후 부시장 자체승진은 언제쯤 가능하며,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키는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시장을 자체승진 시키지 못하고 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임 보건소장을 강원도에 요청하게 된 경위와 이번에 강원도와 인사교류를 하면서 속초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교류방안에 대하여 협의사항이 있었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신임 보건소장께서는 속초시에 근무하면서 직원간의 화합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포부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관행적으로 강원도로부터 전입되고 있는 시설사무관 한자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강원도 뚝으로 그 자리를

남겨둘 것 인지, 아니면 도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과감하게 전입을 배제하고 자체승진의 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향후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규모 동(洞) 통·폐합이 이루어 질 경우 속초시로선 조직 구조내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동 통·폐합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은 정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통·폐합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향후 인사문제 등 시장님으로서의 대응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 정 질 문 서

|      |                          |      |                         |
|------|--------------------------|------|-------------------------|
| 질문의원 | 김 강 수                    | 서 명  |                         |
| 제 목  |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br>전면 재검토 | 담당실과 | 도 시 과<br>세 무 과<br>민원봉사과 |

본 의원은 소야지구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관광인프라시설 유치를 위한 잉여 유휴토지의 미개발 존재사유, 도시 남·북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등 역기능 대처방안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의 불충분성,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모 공직자와 그 가족소유의 토지가 입안단계에서 변경내지는 제척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행태와 시장님께서 토지소유주들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성 결여로 발생한 주민들의 행정 불신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와중에 지난 11월 2일 소야지구는 총 5개 구역에 면적 약 88만 6천평방미터(885,802㎡)로 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도시관리계획이 최종 결정되어 오는 12월 초순경 까지 주민들에게 열람하게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 여러분 !  
어렵게 토지를 장만하여 생업을 구상하시는 주민 여러분 !

평생을 모은 돈으로 주택을 마련해 이제 희망을 안고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하려는 주민 여러분의 억울함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통함에, 본의원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야지구개발사업의 입안단계에서 납득키 어려운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속초시의 인구 12만명을 정주인구로 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입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연간 약 1천명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통계를 믿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는 소야별 토지소유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업의 추진일정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공시지가를 단계적으로 높여 토지보상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시지가를 인상하겠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 반발하는 주민들의 근본을 파악치 못하고 보상가 운운(云云)하면서 대처하고 있는 속초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이번 소야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발동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실시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사직당국에 고발이 되어 조사 중임을 감안하여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는 그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또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으나 당국의 조사가 종결되어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집행부에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속초시에서는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쾌적한 정주·관광·휴양시설 공간 조성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수요를 대비한다” 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호유원지개발사업이 지난 2000년 완공된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용지분양의 저조, 민간의 개발사업 부진으로 속초시의 발전에 필요한 관광시설물 등 유치가능한 대단위 용지 5필지는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해수욕장 민자유치개발사업도 아직까지는 지지 부진한 상태에서 수려한 산(山)도 청정한 바다와도 접해 있지 않은 소야지역에,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청초호 주변의 사업추진도 여의치 않은 시점에 다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 전문가 내지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실물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의 인상으로 소야지구에 대한 분양·투자개발사업 추진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광·휴양시설 부지 등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정책판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포괄적 개념에서 볼 때 2009년 속초항 구수로 교량공사가 완공되고 2013년 소야지구까지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속초 북부권지역과 도심(都心)상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예상됨은 물론 설악관광·쇼핑거리 등 각종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도 분명 악영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 견해를 묻는 네가지 항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속초시 모 공직자 개입의혹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자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한점 감춤없이 한건 한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이 토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 중인 주민의혹 내용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사업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서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보상금액을 높여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고,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소야지구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속초시와 협약한 한국토지공사와 보상가 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야지구 토지소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되고 있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차기 시장이 입안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속초시 장기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